#코로나19 #산불 #우크라이나 #북한 #사망자

뉴스홈 **최신기사**

[SNS세상] 포켓몬빵 열풍..."20 · 30세대 힐링 방식"

송고시간 2022-03-12 08:05



복권,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기실때 **희망**이되고 **행복**이 됩니다.

스티커, 중고거래에 고가로 등장하기도 전문가 "행복했던 과거 회상하게 해주는 수단"

(서울=연합뉴스) 진영기 인턴기자 = "근처 편의점 10곳을 돌았는데 포켓몬빵을 한 개도 구하지 못했어요"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A씨

"어렸을 땐 포기했는데, 이번에는 151마리 모두 다 모아보려 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 B씨

지난달 재출시된 포켓몬빵이 SNS에서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11일 기준 인스타그램에 포켓몬빵 해시태그(#포켓몬빵)와 함께 올라온 게시물은 2만 3천여 개에 이른다.







포켓몬빵 품절 공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켓몬빵 구매 열풍은 20~30대의 향수를 자극하는 포켓몬 '띠부씰'(뗐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스티커) 수 집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출시된 포켓몬빵의 스티커 디자인은 20~30대에게 생소한 최신 포켓몬이었

핫뉴스

구치소에서 오는 손편지...스토킹 피해 자는 공포에 떨었다

김건희 여사, 통화 녹음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성 패트릭 데이' 앞두고 美 시카고강 초록으로 염색

"평생 집밥해주겠다" 尹당선인, 이메일 로 프러포즈

에베레스트 해발 6천496m서 다과회를...기네스 신...

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에 ...

러시아 안방서 스파이더맨 못본다...BAT담배도 철수

SUV에 깔린 여성...시민들이 차 들어 올려 구조

빗썸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24시간 변동률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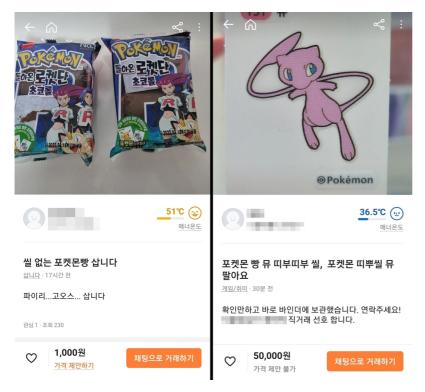
<	종목	현재가(원)	변동률 >
B	비트코인	48,570,000	-0.78%
0	이더리움	3,208,000	-1.32%
6	리플	1.005	+9 56%



[SNS세상] 포켓몬빵 열풍..."20 · 30세대 힐링 방식"

누리꾼들은 빵을 구하려 해도 재고가 없어 구할 수 없다며 물량부족을 성토했다. 일부 누리꾼은 '허니 버터칩 품절' 사건을 언급하며 인기가 금방 사그라들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포켓몬빵을 구하려 편의점 네 곳을 방문했다는 김호준(가명 • 28)씨는 "포켓몬 스티커를 모았던 추억이 떠올라 포켓몬빵을 샀다"며 "초코빵을 먹었는데 맛은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포켓몬빵 • '띠부씰' 중고거래

[중고거래 앱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포켓몬빵 품귀현상으로 인해 포켓몬 '띠부씰'은 중고거 래의 대상이 됐다. 포켓몬 스티커는 희귀한 정도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데, 일반적으로 개당 2천~4천 원의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희귀 포켓몬 '뮤'와 '뮤츠'가 그려진 스티커는 5만 원에 거래되기도 한다. 포켓몬빵의 편의점 판매가가 1천500원인 것과 대조적이다.

빵을 맛보기 위해 스티커가 없는 빵을 산다는 구매자도 눈에 띄었다. 한 구매자는 "동네에 재고가 다 떨어졌 다"면서 "스티커는 필요 없으니 빵을 먹어보고 싶다"고 구매 게시물을 올렸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과거 포켓몬빵이 처음 출시됐을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다"며 포켓몬빵을 ' $20\sim30$ 대가 과거와 같은 소비 패턴으로 행복했던 어린 시절을 추억하며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고 힐링하는 방식'이라고 해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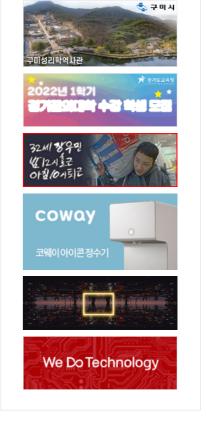
young71@yna.co.kr

기사문의나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2/03/12 08:05 송고

#포켓몬빵 #스티커 #중고거래 #포켓몬



이어보기 좋은 뉴스

중부지방 오후부터 비 소식...서울 낮 최고 19도

구치소에서 오는 손편지...스토킹 피해자는 공포에 떨었다

'성 패트릭 데이' 앞두고 美 시카고강 초록으 로 염색

외교부, '우크라 무단입국' 이근 전 대위 경찰 에 고발

거리두기 완화 후 첫 '불금'...강남 곳곳서 음 주운전 적발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에디터스 픽 Editor's Picks

영상

01:17

[영상] "평생 집밥해주겠다" 尹당선인, 이메일로 프 러포즈

뉴스

일일확진 40만명 육박누적사망 1만명..."하 루 사망 600명 우려"

윤 당선인, 첫 주말 자택서 휴식...인수위 인선 고심

광화문 대통령 시대 가시화...경찰, 집회·교통관리 '고심'

[동해안 산불] 통계 작성 이후 최장 시간...2000년 191 시간 기록 깨

민주 '윤호중 비대위' 모레 공식출 범...비대위원 인선 박차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완도 명사십리 해양치유 노르 동대문 홍보할 '가상 인턴사원' 뉴질랜드서 스카이다이빙 즐기 [AD] 구취가 해결된다고?? 이렇 딕워킹 코스 '인기'

뽑아주세요...MBTI도 공개 전 여성, 공중 충돌사고로 숨져 게나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면...

2022-03-11 momo-selection

2022-03-10

2022-03-12

2022-03-11

대최다...하루새 10만명 늘어 ... 프까지...서울의 LP 매장들

[1보] 신규확진 38만3665명 역 [여행honey] LP부터 카세트테이 [AD] 이번회차 예상번호 미리 [AD] 로또, '이것' 알면 당첨금 쉽 공개됐다! 확인할 것

게... 충격!

2022-03-12

이번회차 분석번호

이번회차 분석번호

현장 영상

03:46 02:19

[영상] 대통령 취임식 어디서 열리나...코로나 로 소규모 초청 예상

[영상] 북한, 동창리 확장·풍계리 복구 정황...핵 ·미사일 도발 징후?

당신이 함께 보면 좋은 영상

댓글 많은 뉴스

101	심진의 어자, 동와 독금 중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손배소
36	이재명, 감사 인사 전하며 "더 나은 변화의 길, 함께 걸어달라"(종합)
23	권성동 "여가부 폐지 공약, 시대정신 따른 尹 결단"
15	북, 동창리·풍계리·금강산·영변서 도발징 후전방위 긴장고조(종합)
14	정의 "文대통령, 안희정 부친상에 근조화 환아직도 반성 없어"

뭐하고 놀까?



유튜브 채널 SNS

뉴스 홈 최신기사 정치 북한 경제 산업 사회 전국 세계 문화 라이프 연예 스포츠 오피니언 사람들

비주얼뉴스 영상 포토 화보 #D 그래픽 뉴스 상품 프리미엄뉴스 뉴스리더 인터넷맞춤형 보도자료 해외배포 보도자료 국내배포

테마별뉴스 핫뉴스 톱뉴스 주요뉴스 긴급뉴스 단독뉴스 많이본뉴스 **출판물** 이매진 연합연감 영문연감 한국인물사전 단행본 월간 마이더스

뉴스+ 이슈돋보기 팩트체크 재난포털 날씨 주요신문 톱뉴스/사설 이시각 헤드라인 **광고** KTX 열차 AREX 공항철도 모바일 PC/홈페이지 출판물

모바일 뉴스 모바일웹 모바일앱 **콘텐츠 판매** 보도사진 이미지 그래픽 동영상 인물

외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고 도pañol Français 관련사이트 연합뉴스TV 인포맥스 한민족센터 K컬처기획단(K-ODYSSEY) 채용 R 클럽 #흥

계약사/제휴문의

회사소개 윤리헌장 저작권규약 수용자권익위원회 모바일모니터링위원회 콘텐츠자문위원회 고충처리

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독자게시판 기사제보(02-398-3000) 사이트맵

연합뉴스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길 25 등록번호 문화, 나00009 등록일자 19801229 발행일자 19801229 Tel. 02-398-3114

(C) Yonhapnews [대표이사] 성기홍 [편집인] 조채희